



지난해 광주시립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린 창작 오페라 '박하사탕' 공연 모습.

<광주시립오페라단 제공>



KT 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8개 예술단, 다양한 장르로 관객맞이

교향악단 박재홍·최하영 협연, 서울 교향악축제 개막 공연 창극단 '수궁가', 발레살롱콘서트, 오페라단 '나비부인' 등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시립예술단이 2023년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는다.

8개 단체로 이뤄진 광주시립예술단은 각 단체별 특색을 살린 공연, 타 지역과의 교류 공연 등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먼저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광주시립교향악단은 2월 중 미국 해외 공연과 함께 정기연주회와 각종 특별 연주회를 기획하고 있다.

광주시향은 성악가 손지혜와 국악종과 함께하는 'White Day' (3월 14일), 칸델라리베스 콩쿠르 우승자인 첼리스트 최하영의 'Queen' (8월 31일), 베이스리스트 김대영과 부조니 콩쿠르 우승자 피아니스트 박재홍의 'Babi Yar' 등 상·하반기 총 11회 정기 연주회를 연다. 오디움 콘서트는 지휘자 조흥석원과 김영언이 함께한 가운데 3월 3일 'Origin of Russian Music'을 시작으로 11월 29일 '슈베르트'까지 총 5차례 펼친다.

또 광주시향은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교향악 축제'에서 말러의 '교향곡 1번'을 개막 무대로 장식할 예정이며 정기연주회 '바비야르' (10월 26일)를 통해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3번 국내 초연을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다. 광주시향은 신년음악회에서 만났던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자 양인모를 비롯해, 쇼팽 콩쿠르 우승자 케빈 케너, 최수열 부산시향 예술감독 등 폭넓은 협연자와 함께하며 보다 다채로운 무대를 꾸며낸다.

광주시립극단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총 4회 '빛꽃 동산' 무대를 계획하고 있다. 한 세기 전 쓰인 안톤체홉의 원작을 바탕으로 하며 최영환이 연출한다. 작품은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우수광스러움, 비애의 공존을 얘기한다.

광주시립창극단은 올해 정기공연 9회, 기획공연 2회, 특별공연 8회 및 해외공연 등을 앞두고 있다. 창극단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판소리 감상회'로 올해

의 공연의 포문을 연다. 창극단 단원을 주축으로 국내 명창과 명고를 초청해 판소리의 예술적 가치를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2월 26일을 시작으로 6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또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58회 정기공연 창극 '무등산 산군기' (6월 8일-10일) 펼친다. 22년 수시공연 '풍류 in 광주·동구' 편으로 기획된 것으로 당시 큰 호응을 얻어 재차 무대에 올린다. 또 9월에는 창극 '수궁가' (7월-10월)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4차례 펼쳐보인다. 계묘년 토끼해를 맞이해 동조제 창시자 김연수 명창이 1974년 국립창극단에서 선보인 수궁가를 각색하며 이습우화처럼 다양한 동물이 등장해 관객들로 하여금 창극에 대한 거리를 좁힌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3월 23일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전통과 현재의 공존'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서는 '김일규류 아쟁산조 협주곡'과 '신내림', '타악협주곡 '무취타' 등을 올린다.

광주시립발레단은 다양한 기획·수사·초청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먼저 북구 문화센터에서 발레살롱콘서트 'Voice of Spring' (3월 3일-4일)을 올린 첫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7월에는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5·18민주화운동 'Divine'을 연다. 10월에는 문예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지젤 하이라이프'를 선보이고 12월 말에는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호두까기 인형' (21일-23일)을 노래하며 한해를 마무리한다.

광주시립오페라단도 대규모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먼저 7월에는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광주시향과 협연으로 '마술피리'를 연다. 지난해 조기 전석 매진된 작품으로 모차르트 최후의 오페라로 알려진 '마술피리'를 오페라 음악 집중도를 높여 완성도 있게 선보인다. 8월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 창작 오페라 '박하사탕' (14일-15일)을 무대에 올린다. 작



최하영



케빈 케너

품은 이상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을 바탕으로 하며 이진용 작곡가의 음악과 함께한다. 하반기에는 대구와 함께하는 달빛동맹 특별공연으로 '나비부인'도 계획돼 있다. 송년음악회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12월 2일-3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오페라 명장면들을 모아 정상급 성악가들이 선보이는 공연으로 2인2색 오페라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펼쳐진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5월 27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버지'를 문예회관 시온행 기간 동안 펼친다. 같은 달에는 광주와 대구 달빛 동맹 교류 공연도 계획돼 있으며 어버이날, 5·18 기념행사 등 현장공간 공연도 진행한다. 10월에는 12일부터 14일까지 문예회관 곳곳에서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도 열린다. 12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지난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영어오페라 '피노키오'가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2회 올려진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상반기와 하반기 4차례 정기연주회를 선보인다. 먼저 3월에는 '카르미나 부라나' (30일)를, 6월에는 '브람스·독일 레퀴엠' (22일)을 무대에 올리고 하반기 11월에는 '레미제라블' (9일-10일)을, 12월에는 '헨델·오라토리오 메시아' (14일)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클래식부터 국악까지 '브런치 콘서트'

2월 22일, 이택주 지휘·김용배 해설 첫 무대

'새해를 시작하는 클래식', '피아니스트 윤한의 살롱 드 첼로', '남상일과 놀다歌 Show', '조은아의 도란도란 콘서트', '오페라가 들리는 48시간 여행'...

지난 2016년부터 8년째 이어져 온 'ACC 브런치 콘서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공연이다. 클래식을 비롯해 뮤지컬, 국악 등 다양한 장르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올해 ACC 브런치 콘서트 연간 일정이 공개됐다.

콘서트는 오는 2월 22일부터 12월까지(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ACC 예술극장에서 진행된다.

첫 공연(2월 22일)은 지휘자 이택주가 이끄는 KT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김용배의 해설로 꾸며진 '새해를 시작하는 클래식'으로 막을 올린다. 바이올리니스트 이해정 등이 출연한다. 3월에는 발레리노 윤진일, 4월 피아니스트 윤한, 5월 국악인 남상일, 6월 피아니스트 조은아, 7월 방송인이자 피아니스트 다니엘 린데만 등이 무대를 선보인다.

하반기는 8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를 비롯해 9월에는 피아니스트 임현정이 다채로운



이택주



이혜정

장르의 음악들을 선사하며 10월에는 오페라 분고장인 이탈리아의 작품들을 만나는 음악여행이 펼쳐진다.

11월은 가수 김광진이 아름다운 음악콘서트를 준비하고, 12월에는 세대를 초월해 좋아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도 예정돼 있다.

한편 연간 패키지 관람권은 26일부터 2월 21일까지 50세에 한해 선착순 판매하며, 총 11회 공연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오는 2월과 3월 공연 관람권은 오는 31일부터 구입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4년 역사' 광주 남구 합창단원 2월 3일까지 모집



24년 역사를 가진 광주 남구 합창단(사진)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1999년 7월 1일 창립된 합창단은 현재 국경관 지휘자와 함께 35명의 단원들로 구성돼 있다.

남구는 2월 3일까지 각 파트별로 베이스 8명, 테너 8명, 알토 5명, 소프라노 5명 등 26명 이내로 접수 받는다. 주민등록상 남구에 거주하거나 남구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존 남구 합창단원으로 활동했던 이들도 신청할 수 있다.

2월 중 공개 오디션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한국 가곡 1곡 완창해야하며 음정 및 박자, 가창력, 무대 매너 등을 평가해 선발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024년 10월 19일까지 2년여간 활동하며 7 연주회를 비롯해 구민의 날 행사 등 다양한 무대에서 오를 기회를 얻는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가량 남구청 10층 연습실에서 진행된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3일까지 남구청 3층 문화관광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greenjong2@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남대 영문학과 BK21연구단, 대학원생 콜로키움

27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문화기억'을 매개로 국제 대학원생 콜로키움에서는 전남대와 전북대, 캠퍼스대 대학원생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강익희 교수의 특강이 이어진다.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BK21교육연구단이 제3회 국제 대학원생 콜로키움을 오는 27일 오전 9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이번 국제 콜로키움은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BK21교육연구단과 전북대 영어영문학과 BK21교육연구단이 공동 주최하고 미국 캠퍼스대 영문과와 캠퍼스대학교 평화와 분

쟁부가 공동 참여한다.

'문화기억'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전남대와 전북대, 캠퍼스대 대학원생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강익희 교수의 특강이 이어진다. 한편 지난해 시작한 국제 대학원생 콜로키움은 한국과 미국을 넘어 세계 신진연구자들이 문화기억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의 062-530-066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맵, 미디어아트플랫폼에 흐르는 신년음악회

2월 말까지 4차례 공연

28일 아코디언&기타 연주

'미디어 아트와 만나는 음악.'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이 음악회 현장으로 변신한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맵/Gwangju Media Art Platform)이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뮤지컬스페이스 공간(대표 박원)과 함께 기획한 이번 음악회는 2월말까지 모두 4차례 미디어아운지(1층)에서 열린다.

지난 14일 한지혜·이상열씨 등이 참여했던 첫 무대에 이어 오는 28일 오후 4시 두번째 음악회가 관객들을 찾아가는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김정란·조남철의 아코디언&기타 연주, 백주영의 하모니카 연주, 박수아의 라틴가요&팬플룻 공연이 펼쳐진다.

또 2월 4일 열리는 세번째 무대에서는 김용의 대금, 강형선의 색소폰, 문은주의 통기타 연주를 만날 수 있으며 마지막 공연이 열리는 2월 18일에는 장미정의 요들송, 한중호의 하모니카 연주, 박원의 팝페



지난 1월 14일 열린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 신년음악회 모습.

<G.MAP 제공>

라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 2020년 창단된 뮤지컬스페이스 공간은 하모니카, 팬플룻, 요들송, 팝페라, 색소폰, 통기타, 아코디언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생활 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는 공연팀으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충장축제, 상생페스타, 기기호호 축제 등에서 80여 회 공연을

개최했다.

G.MAP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이 교류 융합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G.MAP에서는 이이남 작가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 음악회 관람 모두 무료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